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TCWG2, 이행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1. 11.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I 회의별 개요

1 제2차 CCSBT 기술이행 작업반 회의 (TCWG2)

- **회의명** : 제2차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기술이행 작업반 (TCWG2)*
* 영문명 : 2nd Technical Compliance Working Group Meeting

□ **회의 목적**

- CCSBT 이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는 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공유

- **일시/장소** : ‘21.10.4.(월), 14:30-19:30/화상회의

- **참석자**(약 40여명) :

- (회원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 (남아공 불참)
- (옵서버) 미국
- (한국 참석자)

이름	기관 및 직위
나일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최봉준	원양산업협회
백상진	원양산업협회
김태호	원양산업협회
박진석	사조산업
추승현	사조산업

- 협력센터 참석자 : 김선경 전문관

□ **주요 의제**

- 시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CDS 태그 인식 개선 권고 사항 공유
- 사무국에 의한 eCDS 개발 진척상황 공유 및 eCDS 트라이얼에 대한 회원국 피드백 확인, 향후 과제 설정

2 제16차 CCSBT 이행위원회 (CC16)

□ 회의명 : 제16차 CCSBT 이행위원회(CC16)*

* 영문명 : 16th Meeting of the Compliance Committee

□ 회의 목적

- CCSBT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회원국 이행 상황 점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방향성 수립 및 점검

□ 일시/장소 : ‘21.10.5.(화)~10.7.(목), 14:30-19:30/화상회의

□ 참석자(약 70여명) :

- (회원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 (남아공 불참)
- (옵서버) 미국, NGO 단체 (ACAP, BLI, HIS, PEW)
- (한국 참석자)

이름	기관 및 직위
나일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이성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은경	수산물품질관리원
최봉준	원양산업협회
백상진	원양산업협회
김태호	원양산업협회
박진석	사조산업
추승현	사조산업

- 협력센터 참석자 : 김선경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주요 의제

- 어획 데이터 및 국별 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남아공), CDS 양식 문제(한국, 호주)
- 인도네시아 ‘19- ‘20년 초과어획에 대한 페이백 계획 진척 점검
- 일본의 시장조사를 통한 태그 부착 위치 개선 검토
- 전자모니터링 실시 경험 공유, 향후 방향성 논의

3 제28차 CCSBT 연례회의 (EC28)

☐ **회의명** : 제28차 CCSBT 연례회의(EC28)*

* 영문명 : 28th Annual Meeting of the CCSBT

☐ **회의 목적**

- 이행위, 확대과학위 보고서 검토 및 채택, 회원국 과제 중간 보고

☐ **일시/장소** : ‘21.10.11.(월)~10.13(수), 14:30-19:30/화상회의

☐ **참석자**(약 80여명) :

- (회원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 (남아공 불참)
- (옵서버) NGO 단체 (ACAP, BLI, HIS, PEW)

- (한국 참석자)

이름	기관 및 직위
나일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이성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은경	수산물품질관리원
최봉준	원양산업협회
백상진	원양산업협회
김태호	원양산업협회
박진석	사조산업
추승현	사조산업

- 협력센터 참석자 : 김선경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TCWG2, 이행위, 연례회의 협력센터 전문관 업무**

- 사전문서 검토, 회의 기간 중 회의록 작성/회의 참석자 공유 및 발언 지원

☐ **주요 의제**

- ‘22년 TAC (17,647톤) 및 국별 할당 결정 (한국 할당 : 1240.631톤, 어획상한 : 1256.8톤)
- 과학위, 이행위 보고서 검토 및 채택
- ERS, 특히 바닷새 보호 관련 조치 검토를 위한 작업반 회의 구성
- 비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 (비회원국의 어획이 TAC산출에 영향 줄 가능성 고려)

II 회의별 주요 논의 결과

1 제2차 CCSBT 기술이행 작업반 회의 (TCWG2)

□ CDS 태그 인식 개선

- 일본 도요스 시장으로 유입되는 남방참다랑어(SBT)에 대해 실시한 태그 조사를 바탕으로 어획시 데이터 (회원국이 사무국에 보고한)와 시장 데이터를 비교 분석
- ‘19~ ‘20년 한국 포함 회원국 일부, 태그 정보 획득률 현저히 저하된 것 확인
- 태그번호가 거의 읽히지 않는 경우를 분석, 3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류
- (논의 결과) 태그 부착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되기 위함임을 상기, 회원국은 해당하는 문제 유형별 1~2년간 개선을 실시, 3가지 문제 유형이 개선될 경우, 태그 스펙 변경은 현시점에서는 불필요

구분	Type A	Type B	Type C
문 제 점	- 태그 입속 깊이 있어, 외부에서 태그정보 확인 불가능 -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	- 아깝딱지 쪽에 부착된 경우 - 태그가 붙은 부분이 위쪽이면 꺾으나, 아래쪽이면 뒤집어서 태그 확인기에 시간적 제한 有	이유 불명, 태그가 절단되어 정보 확인 어려움
사 진			
개 선 방 안	입속이 아니라 아가미를 뜯은 바로 밑부분에 부착시키면 확인 용이	Type B 배지느러미 또는 어체의 센터라인에 있는 지느러미에 부착시키면, 어체가 어느 쪽으로 뒤집히더라도 확인 용이	- 근본적으로 태그의 역할 회원국이 재인식해야 함 - 태그가 절단/유실되어 있으면, 정보를 읽을 수 없어 제 역할 불가

			• first point of sale까지만이라도 태그유지 강화해야 함
--	---	--	---

□ eCDS

- eCDS 개발 작업 진행, 사무국이 제시한 개발 작업 현황('21년 3월 background paper)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원국 지지
- 회원국 피드백을 반영*, '22년 하반기 개발 완료 후, '24년 완전히 eCDS로 이행하는 것이 목표
 - * 일본 (스크린 레이아웃, 모바일 호환성 등), 인도네시아(catch tagging form/CMF 순서 조정, 록다운 메뉴 추가 등) 사무국에 피드백 공유 ('21.10.4 기준)
- (논의 결과) ⁽¹⁾ CDS 개정안 결의와 미해결 문제 논의를 위한 eCDS 작업반 설치, ⁽²⁾ 영어/일본어 eCDS 유저 매뉴얼 작성

□ 제3차 기술이행작업반회의(TCWG3) 의제 (예정)

- 전자모니터링 (EM) 관련 경험 대한 논의
 - 호주가 EM background paper 준비, 미국이 추가 정보 제공 예정
 - 뉴질랜드, EU, 일본 현재 전자모니터링(EM) 트라이얼 실시중

□ 회원국 불이행 상황 및 대응

- (남아공) 국별 보고서 및 과학데이터 미제출, CDS문서 항만검사 보고서 제출 지연, CDS 어획 모니터링 양식 재사용, 사무국 보고 SBT 사망수와 시리제 사망수 간 오차 발생, CC16 불참*

* 불이행 사항 CC16 연례보고서 명기, 남아공측에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수정조치 요청, 타 회원국 지원 의향 전달

- (한국) 남방참다랑어 총톤수 67톤에 대한 CDS(어획증명제도) 수입 문서 결락, 진척이 느린 부분은 한국정부의 시스템상 문제로 향후 진척이 있을 경우, 이행위에 결과 보고 예정
- (호주) CDS 문서 결락 (4톤 미만)
- (일본) ERS 조화에 관한 결의에 대해 ERS조치 실시, 타RFMO의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 정리, '22년 이행위 연례보고서에 보고할 예정

□ 인도네시아의 초과어획에 대한 수정조치 경과 확인

- CC15에서 논의된 인도네시아의 2년간의 초과어획에 대한 중간 점검

('21년 9월 31일 시점 인도네시아 어획량) 948,800.6kg	
주요 조치	• (조기 경보 시스템) CDS 모니터링 매일 실시, 쿼터의 80%에 달하면 경보 발송 • 10-11월의 경우 어획량 증가를 예상하여 어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특정하여 경보 발송, 해역 특정 좌표에 대한 투망 금지 • 90%에 달하면 추가로 어획 금지 경보
회원국 피드백	90%에 달했을 때 조업 금지 경보시, VMS사용 해당 해역 어획 여부 확인 조치 권장

- (인도네시아가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CDS 모니터링 매일 실시, 쿼터의 80%에 달하면 경보 발송, 10-11월의 경우 어획량 증가를 예상하여 어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특정하여 경보 발송, 해역 특정 좌표에 대한 투망 금지, 90%에 달하면 추가 정보

□ 기술이행 작업반 결과 보고

- (CDS 태그 인식 개선)
 - (Type A) CCSBT 사무국 태그 또는 한국 태그의 경우, 아감딱지를 펜 목 안쪽 부분에서 5cm 이내의 입안에 태그를 부착해야 함
 - (Type B) 호주 태그의 경우, 아감딱지가 아닌 뒷지느러미에 부착 (생선 SBT만 해당)
 - 태그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은 태그 유실, 손상이 없도록 어업 및 무역 관계자에게 주지

□ EU의 QAR 결과에 대한 논의

EU의 QAR 결과에 대한 논의	
EU	• QAR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지 검토 가능함 • EU의 SBT 어획은 “극히 적거나 없는 혼획” 이외에 없음 • 타RFMO 관리 규정에 맞춰 옵서버 커버리지 비율 5% 준수하고 있음 • EU와 같이 SBT를 어획하지 않는 국가, 비회원국을 위한 간소화된 CDS 제도와 프로세스 필요성 제기 • 현황을 반영한 CDS 결의 개정 희망 • ‘22년 국별보고서에 QAR 결론에 대한 EU의 대응 제공 가능
회원국 피드백	• EU도 CCSBT 기준인 옵서버 커버리지 10% 적용 준수 바람 • 옵서버 커버리지가 준수되지 않으면 혼획이 없다는 전제도 불확실 • SBT 조업해역에도 옵서버 파견, “혼획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전제 확인/증명 바람 • 내년 이행위에서 QAR 결과에 대한 EU의 대응을 제공 받길 희망

□ 피식 SBT

- 피식이 있었던 SBT는 폐기/방류로 넣는 것이 적절
 - 피식은 비율상 높지 않고,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시키기는 어려움
 - 이행위 차원에서는 피식 SBT가 큰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향후 자원관리, 과학연구에서 피식 SBT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위에 판단을 요청해야 함
- (ESC에의 정보 제공) 뉴질랜드 작성 문서* 부록 표와 함께 회원국의 자발적인 추가 정보 제공, 과학위에 피식의 영향에 대해 조언 요청
 - * “Report back from the intersessional discussion group on predated southern bluefin tuna”

□ 일본의 시장조사 관련 논의

- 일본으로 들어온 수입량과 각 회원국이 사무국에 보고한 어획량 비교
 - 대부분의 회원국 거의 동일한 추이, 일부 회원국은 일본에 수입되는 양보다 어획량이 훨씬 많은 국가도 있어, 일본 이외의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
 - * CCSBT 회원국 + 비회원국 미국 포함 약 2,000t 규모의 SBT 시장이 일본 이외에 존재, 100t 이상의 SBT 시장이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에 대한 조사 필요성 인식
- (태그 조사 비용) CCSBT에서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일본은 CCSBT 예산에서 지출하길 희망, 의견 교환 메일 그룹 구성 요청
- (한국의 태그 인식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양면 인쇄 태그여도 아가미를 떼어난 부분 5cm 보다 훨씬 안쪽 (왼쪽)에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인식이 어려움
 - Type A 개선사항 (5cm 이내)로 부착하면, 한국의 태그 인식률 비약적

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전자모니터링 (EM) 관련 경험 공유

국가 / 단체	EM 활용 경험 공유 내용
호주	• 로그북 데이터 개선 확인 • 영구적인 기록으로 감사대상으로 활용 가능 • 데이터 질 크게 상승 • 오피서버 승선 어려울 때 대안으로 활용 가능 • 오피서버와 분리된 독립적인 감찰 가능 • 항만 검사 등 활용 가능 • 타 RFMO에서도 작업반 구성 EM 표준 고려하고 있음 • 타 RFMO와의 호환성 고려해서 EM 표준 구상 필요 • 내년 TCWG에 페이퍼 제출 가능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호주보다는 경험 부족 • 뉴질랜드 선단 소형 선단, 오피서버 대안으로 EM 활용 긍정적 • CCSBT 오피서버 기준이 EM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점 인식 필요 • 꼭 타 RFMO와 통합시켜 맞출 필요는 없을 듯함
EU	• 트라이얼 실시 중
일본	• 트라이얼 실시 중 • SBT 어획 많은 고위도의 험난한 해역에서도 원활이 작동할지 우려 →(호주) CCAMLR 선단도 EM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 없을 듯함 • 내년 TCWG3에 호주 페이퍼 제출은 환영 - 그러나, EM 표준을 정하자는 논의는 아직 곤란 - WCPFC, IOTC, IATTC 에서도 EM 논의 경과를 보고, 다루고자 함
미국	• ICCAT에 제출한 기술, 비용 정보 관련 연승어업용 페이퍼. TCWG3에 미국도 정보 제공 가능
HIS	• EM은 이행/불이행 판단 증거가 되므로 매우 바람직
결론	
⇒내년 TCWG3 의제로 EM 채택, EM 백그라운드 페이퍼 호주 준비, 미국이 추가 정보 제공	

□ 사무국 보고서

구분	상세	
1	• 이행위 의장 ; 현 의장 임기 갱신	
2	• 새로운 사무국장 채용 프로세스 → 사무국 제안 프로세스에 전원 동의 → (일본 제안) zoom이 아닌 대면 면접 제안, 이견 없으면 반영	
3	• ACAP, BLI 에게 이행위 long-term 옵서버 자격 부여	→ 서면 동의/승인
4	• PEW에게 이행위, 총회 long-term 옵서버 자격 부여	

□ 회원국 프로젝트 보고서

- (호주) 스테레오 비디오 코로나19로 지연 있었으나, ‘22년 중 트라이얼 개시를 위해 노력할 것
 - 확대과학위원회(ESC)로부터 RMA 3t 제공받을 예정
 - 유럽 축양장에서 이미 호주 기술 사용 중, 빠른 시일 내에 트라이얼 완료 후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일본 이외의 SBT 유통 시장 확인을 위한 조사는 모든 회원국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므로 CCSBT 예산으로 진행 희망
 - 회원국이 사무국에 제출한 어체별 중량 데이터/일본이 실시한 태그 관리 조사에서 확인한 중량 데이터 비교 합치 여부 확인
 - 태그 부착 위치 개선사항 정리*
 - * 회원국이 1~2년 정도 트라이얼로 개선 노력
 - (호주) 일본 조사 지지, 투명성 확보 위해 모든 데이터셋을 보고서에 넣어 문서화 해주길 희망
- (뉴질랜드) ‘22년도 TAC 결정이 있는 중요한 해, 스테레오 비디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점 고려, 불확실성 불식 방안으로 호주 CDS 데이

터를 ESC에 독립적 리뷰용으로 제출하는 것 제안

- (호주) 비동의

□ 재정 및 운영

구분	논의 내용
‘21년 개정 예산안	개정 예산안 승인
‘22년 예산안	1% 분담금 인상 반영 , 과학위의 e-tagging 디자인 스터디 예산 삭제
‘23년 예산안	가 예산에 과학위의 e-tagging 디자인 스터디 예산 추가

○ ‘22년 대면/영상회의 가능성 모두 오픈

○ 향후 회원국 분담금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이행위 보고서

항목	상세
불이행 사항	• (남아공) 필수 데이터 미제출/지연, 불이행 사항 개선을 위한 타임라인이 제시된 플랜 제출 필요 • (인도네시아) 페이지백 계획, 관리조치 리뷰했음, EC27에서 논의한 방향성에 맞춰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한국, 호주) CDS 문제 • (회원국 일반) 양상 전제 오피서버 없는 비율 높음, 과학 오피서버 승선 비율 낮음
CPG5	• 사무국이 수령한 통지 없음 • 일본은 CDS 태깅 요건 관련 ‘21년 8월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통지하겠다고 보고
TCWG2 회의	• eCDS : 향후 유저 매뉴얼 작성, 개정된 CDS 결의안 작성 필요 • CDS 태그 장착 위치 개선사항 정리 • 내년에 TCWG3 개최 : E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
QAR	• (EU)‘22년 연례보고서에서 특정된 문제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를 보고할 예정 • 장래 QAR에 대해 CC17 (‘22년)에 추가 논의할 것, 뉴질랜드가 디스커션 그룹 리드
CDS 결의 관련	• (일본) CDS 결의 para 1.2 수정 합의, 동일 문구 CDS 결의 부록1 instruction sheet에도 적용해야
비회원국 오피서버	• 나미비아는 SBT 어획 보고 수년간 없었음 (ICCAT 확인) • 중국은 남인도양에서 조업, SBT 분포역에서 조업하고 있어, 컨택 계속할 것

초청 관련	
바닷새 혼획 조치	• (뉴질랜드) 바닷새 혼획 조치 매우 중요, 룰 설정, 이행 감시 강화 필요 →(CC의장) BLI 프로젝트 내년 개시, 어느정도 문제 해소될 것으로 보임

□ 과학위 보고서

항목	상세
CPUE 지수 관련	• 한국의 CPUE 지수는 '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 •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CPUE 지수 트렌드는 최근 자원평가 결과와 일치 • 계속적으로 증가 경향일 것으로 예상, 자원은 계속 회복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연승 CPUE 추정치가 '18년 아주 높았던 것을 고려, 조치 필요 • 어업 축소, 공간 축소, 실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음 • 더 많은 영역에서 CPUE를 측정해야 함 • (해결안) 갭을 메꿀 수 있는 모델 개발 중 (geo-statistics) • 새로운 CPUE 지수는 OM 리컨디셔닝 타이밍에 사용, 마지막 미조정 거쳐, '24~'26년 TAC 계산 전 반영 →(PEW) 10년간 2배 정도로 자원이 회복됨, CCSBT는 타RFMO에 비해 관리 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	• '21~'23년 TAC에 관한 권고를 변경할 이유는 없음
EC-ESC간 소통 개선	• 향후 TAC에 관해 TAC가 결정되기 전보다 이른 시기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작년 이행위에서 행정측은 TAC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통문제가 제기됨 • 과학적 설명을 위한 자료 제시 및 설명 방법이 과제로 대두 • '27년 블록에 대해 내년에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 (ESC로부터 나온 개선안) 의장 보고서, 쉬운 언어로 summary para 만들기, 비공식 회의 활용, 각국에서 내부적으로 세미나, 웨비나 개최 등 →(EU) 소통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만족, 전체적인 트렌드를 그래프 등으로 간결하게 제시해주면 좋을 듯 →(한국) 과학자-행정간 소통 개선의 중요성 인지, informal한 워크숍, 세미나는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 베스트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ESC 의장과 다른 회원국과 논의 계속,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은 내부적인 세미나를 과학자-업계-행정간 고려 중, "non-technical summary"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 →(일본) 과학자만 설명하는 게 아닌 행정측도 업계에 잘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자간에 자원관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는 것이 중요할 듯, 히스토그램을 제시해주면 행정측도 TAC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납득 가능할 듯함 →(인니) 과학자 간 소통도 필요함, ERS 회의 등에 자국 과학자를 출석시키고 싶음, 타RFMO에서는 출석을 위한 펀드를 마련해주고 있음, 재정위에서 자금 고려 희망
결론	
• ESC가 고려한 소통 개선안은 리뷰하였음 • 향후 EC도 소통 개선안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공해주길 희망 • (과학위 보고서 채택) 자원회복 개선은 타RFMO와 비교,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수준	

□ TAC 결정 및 할당

- 제27차 CCSBT 연례회의에서 매년 17,647톤 (‘21-23년)으로 결정
 - ESC는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는 간주하지 않아 추가할 조언 없어 그대로 유지

회원국	국별 할당량	국별 어획 비율	Effective Catch Limit
일본	6165.068	0.355643	6197.4
호주	6165.068	0.355643	6238.4
뉴질랜드	1088.273	0.062779	1102.5
한국	1240.631	0.071568	1256.8
대만	1240.631	0.071568	1256.8
인도네시아	1001.705	0.057785	1122.8
EU	10.883	0.000628	11
남아프리카	422.741	0.024387	455.3

- (인도네시아에 특별 할당 80톤에 대해) 페이백 계획 이행, 향후 추가적인 초과어획이 없음을 전제로 제공되는 부분임을 재차 확인

- 인도네시아는 '21년 남은 3개월 간 조기 경보 시스템, 과학자의 과거 트렌드 분석 실시, 쿼터의 90%에 달하게 되면 특정 달, 특정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시킬 예정
- 초과어획이 발생할 경우, 페이백 해야할 양과 80톤 할당 여부 재 논의할 것

□ ERS (생태학적 관련종)

- 바닷새에 대한 개선된 대응이 필요함 인지, ERS 작업반 회의 매년 개최 희망 (호주, 뉴질랜드) / 매년 개최는 부담이 큼 (일본, 대만)

□ 퍼포먼스 리뷰 중간 보고

평가 관점	리뷰
보존관리 (과학 관점)	• SBT 자원 상태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는 상황으로 보임 • SBT에 대한 과학 조사 연구 결과 훌륭 • 비대상종에 대해서는 우려 있음 - 특히, 바닷새 • CCSBT는 비대상종 관리에 시간과 리소스를 더 들일 필요가 있음 • 기존 멤버/비교적 최근 가입 멤버 사이에 노력/관리 갭 발생 - 과학 모델링 등, 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 간에도 차이 有 - 과학 모델에서 차이 발생은 타 RFMO에서도 有 데이터 정확성, 신빙성, 기일 내 제출 중요 - 향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신속히 이행 가능
보존관리 (관리 관점)	• SBT에 대해서 관리 문제 없음 • ERS에 대한 관리 조치 부족 - 타RFMO보다도 바닷새에 관한 관리는 CCSBT에서 중요도가 더 큰 부분 • 과학자 - 행정가 간 소통 개선 필요 - 향후 관리 리스크로 발현될 수 있음 - 비공식적인 대화는 타RFMO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이행 및 집행	• QAR 관련 follow-up이 없다는 점이 문제 - 평가 자체에 대한 코멘트는 있으나, follow-up 부재 • QAR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
F&A	• 하부기관과 재정위원회 간 소통 부족 • informal saving funds는 있지만, 정식화하는 게 좋을 듯

□ 비회원국과의 관계

비회원국	논의 사항
중국	• SBT 어획 많을 것으로 예상 • 국내 규제 조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CCSBT TAC 산출에는 비회원국에 의한 SBT 어획도 데이터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 •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 필요
피지	• 기존 방식대로 초청 (사무국 서한)
모리셔스	• 기존 방식대로 초청 (사무국 서한) • 어획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항만국 • 이행관점에서 항만국과의 관계는 중요 • CCAMLR에 대해서는 모리셔스는 협력적 비회원국이 되어 있으나, CCSBT에는 반응이 없음
나미비아	• SBT 어획 수년간 보고된 바 없음, 초청 안하기로 함
싱가폴	• 기존 방식대로 초청 (사무국 서한)

□ 차기 연례회의의 관련 사항

- 제29차 CCSBT 연례회의는 뉴질랜드 개최 예정
 - 의장(뉴질랜드), 부의장(한국) 임명 예정